

母國서 研究 결과

國內外問題點 胸襟 털어놓고 討論



李 春 植
在 獨 科 協 會 長

경애하는 내빈 그리고 과학기술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재구라파 한국과학기술자들은 그리던 모국에서 국내의 과학기술자 여러 선배, 동료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학술발표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광복 30주년의 뜻있는 해를 맞아 잠시나마 조국의 품에 돌아와 각자 그동안 쌓은 연구와 경험의 결과를 발표하게 됨에 감회가 크며, 여러분의 성대하고 정성어린 환영을 대하니 감격과 감사한 마음 비길 데 없습니다.

이번 이 학술회를 위하여 힘써주신 여러 관계기관과 인사들에게 구라파의 여러 한국인 과학기술자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구라파에는 약 250명의 과학기술자들이 제각기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창립된 재독한국과학기술자 협회는 일로 확장의 길에 서 있으며, 이를 경험으로 지금 영국, 불란서, 스위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재구협을 창립할려는 움직임이 활발이 전개되어 아마 금년 여름에는 창립총회가 개최되리라 믿습니다.

재독과협은 1973년 5월 6일 창립된 이래 협회가 목적하는 바인 재독한국인과학기술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모국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수행함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독과협은 세 차례의 학술강연회를 가졌고 이를 통하여 40여 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고 연 200명의 과학기술자들이 이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로써 재독과학기술자 거의가 협회 일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독과협은 현재 80명 가까운 회원을 갖고 있으며 초대역원과 제2대의 현역원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나날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독과협의 성장·발전에 국내 관계 기관과 여러분 국내과학기술자들의 끊임 없는 후원과 성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이에 밝히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감사 드립니다.

發 表 하 여 感 懷 키

하나씩 課題안고 돌아가 研究할 계획

이제까지 수행한 재독과협의 사업으로는 학술강연회 외에 회보 발간, 국내 및 독일의 과학기술 관계기관과 산업기관들과의 연관 관계를 맺어 한독과학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터전을 닦았고, 금년도의 주요 사업으로서는 제3차 학술강연회, 모국방문학술회, 재구 과협 설립, 한, 독 과학기술교류 촉진 kolloquim, 총람 발행 등으로 이는 이미 완수되었거나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이번 모국방문 심포지움도 국내측 관계기관 인사들의 절대적인 후원과 협력으로 오늘 이같이 개최식을 갖게 됨에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피치 못할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번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은 못하였지만, 이역만리 구라파에서 지금 이번 이 심포지움의 대성공을 빌고 응원하고 있는 저희 동료 과학기술자들의 인사를 여러 분께 아울러 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하여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여러 국내과학기술자들에게 아는 그대로 소박하게 발표하고, 여러분과의 학술토론의 기회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끊겼던 인적관계를 새로이 하여 여러분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이번 모국방문을 통하여 국내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몸소 보고 파악인식함으로써 저희 각자의 앞으로의 연구와 직장생활의 올바른 방향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조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길을 찾아볼려고 합니다. 저희는 대개가 국내 실정에 밝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저희가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국내의 문제점들을 흥금을 터놓고 기탄없이 토론하여 주셔서 저희들 각자가 적어도 하나씩의 과제를 갖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희들의 모국방문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75년 4월 1일